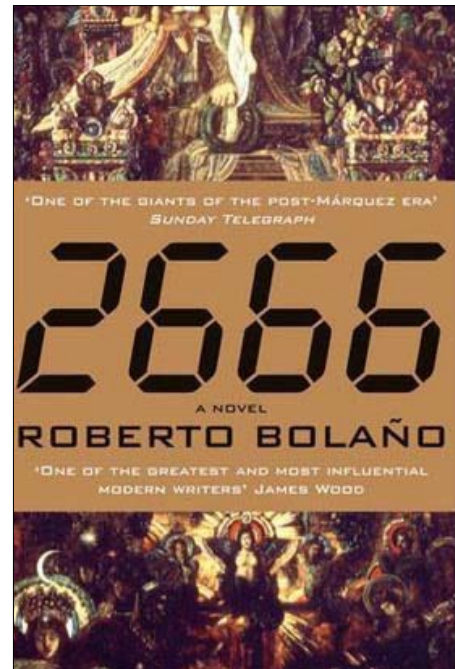


## ■ 생명이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 후아레스 시의 ‘여성살해’와 뒤범벅된 이야기들

로베르토 폰세 코르데로

2004년 발간된 로베르토 볼라뇨의 유작(遺作) 소설 『2666』에서는 유럽인 문학평론가 두 사람과 칠레인 망명객 한 사람이, 가상의 도시인 듯하지만 수많은 미해결 ‘여성살해’ 사건으로 서글픈 명성을 얻은 멕시코 국경도시 후아레스와 쓰라릴 만큼 비슷한 도시에서 한 마술사를 찾아간다. 그 마술사는 독토르 퀘니히라고 알려져 있지만 두 문학 평론가는 그의 정체에 심각하고도 불길한 의심을 품고 있다. 독토르 퀘니히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서는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는다. 정말 마술사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다.



로베르토 볼라뇨의 소설 『2666』 영어판 표지

펠리티에가 영어로 물었다. “당신은 무슨 마술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벼룩을 사라지게 합니다.” 독토르 퀘니히의 대답에 거  
기 있던 다섯 사람이 웃었다.  
“사실입니다.” 사업가[마술사의 매니저]가 말했다.

“다음으로 비둘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은 고양이, 그 다음은 개, 마지막에는 아이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 대화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재미없고 별 볼일 없는 정말로 사소한 부분이다(마술사를 포함해서 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둘은 그 다음 수백 쪽 동안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끔찍한 일련의 범죄에 대한 서사적 은유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16년 전부터 후아레스 시의 여성들이 당한 이 일련의 범죄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사실상 『2666』의 가장 뚜렷한 주제이다. 무엇보다 볼라노의 이 소설은 적어도 지금까지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을 재현한 최고의 예술 작품이다(작품 스케일과 미학적 완벽성으로 보아 가까운 미래에 이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인용문에서처럼 아이들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사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범죄논리의 법칙, 심지어 인과율의 법칙에 도전하는 듯한 여성살해 사건들의 설명 불가능한 특징을 겨냥한다.

게다가 독토르 퀘니히의 서커스 공연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하등’ 동물(벌레), 그보다 더 ‘진화한’ 동물(개), 마지막으로 인간(아이들) 순서로 되어 있어서, 의미심장하고 소름끼치도록 비윤리적인 연속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주체들은 극도로 불평등한 사회의 최약자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인간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격하되어 있다. 이 일이 아무리 정의에 어긋나고, 아무리 비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남(南)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이 착취 당하고 따돌림 받는 주체들은 기존질서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산 몸뚱이다. 개인과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 별거벗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환도 가능하고 심지어 폐기되기도 한다.

물론 후아레스 시의 살인사건들은 서구의 지식인과 학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까지 이 도시를 세계화, 초국가적 수탈, 부권(父權) 사회 등등 모든 나쁜 점의 상징으로 만들었고, 그 주요 희생자도 어린이가 아니라 여성이다(물론 이 여성 중 적지 않은 수는 살해되었을 때 미성년자였다). 사실, 이 범죄의 물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신조어인 ‘여성살해’(femicidio 혹은 feminicidio)에서 알 수 있듯이, 후아레스 시의 여성들은 세계시장—이 시장은 특히 후아레스 시, 더 넓게는 멕시코, 나아가 전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약밀매산업뿐만 아니라 불법이주 산업도 포함한다—이 황폐하게 만든 도시의 폭력에 따른 부차적 피해자가 아니라 그 폭력의 주 대상이다. 또한, 다소 다른 한 통계에 따르면, 오직 피해자들의 성별만이 내부연관성도 논리도 구심점도 없는 이 폭력에 일정한 내부연관성, 논리, 구심점을 부여한다.

국가나 준국가조직의 소행이 아닌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에 달한 폭력적 현상에 대한 미디어의 반향은 그렇다 쳐도, 이 현상이 ‘단일한’ 현상, 다시 말해 ‘단일한’ 연쇄범죄처럼 인식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무려 500구 가량의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 수도 상당하니 단일사건으로 보기는 너무 희생자가 많다. 그렇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1993년부터 단일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단일사건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됨으로써 후아레스 시의 여성겨냥폭력에 준엄한 논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셈이다. 이 범죄의 악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이 여성살해 현상에 어떤 섭리가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역설적으로 살해당한 희생자들 개개인에게는 결여된 섭리이다).

하지만 그 준엄한 논리가 무엇인지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다.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다보니 수많은 ‘진실’이 제기되었으며, 때때로 완전히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더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다시 말해, 공식적 ‘진실’과는 다른 각종 이야기 그리고 음모론들이 난무하는 편집증 산업이 되어버렸고, 그 산업에서는 여성살해의 책임자 역할을 맡을 후보도, 후아레스 시를 국제적으로 극악무도한 도시로 만들어 폭력적 논리의 발화자들도 다수이며, 이들의 정체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리하여 마약밀매, 공산권 몰락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대변되는 제국주의, 전형적인 멕시코 남성우월주의, 마킬라 산업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무지막지한 수탈, 몇몇 개인의 성적 일탈, 청년 조직폭력배 집단, 정부의 부패, 이런 일이면 늘 부상하는 사회 일각의 악마적 제의 등등 별 해괴한 원인들이 그 확실한 사실—딱 하나 뿐인 확실한 사실—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그 확실한 사실이란 여성 수백 명이 후아레스 시에서 살해되었건만, 원인으로 거론된 것들 중 단 한 가지도 그럴싸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존 F. 케네디같은 저명인사 암살, 살인마 잭의 연쇄살인, 나치 독일 관련 범죄 등등 몇 가지 유명한 역사적 ‘수수께끼’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살해 현상도 독자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는 현실과는 피상적인 관련만 있을 뿐이다. 후아레스 시 살인 사건들에 대한 세르히오 곤살레스 로드리게스의 연구서 『사막의 뼈다귀들 Huesos en el desierto』에 담긴 사건 내용과는 거의 아무관련 없는 독자적 생명이다.

사실, 후아레스 시 여성겨냥폭력의 경우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경찰 용어상의 ‘사건’, 즉 추리를 통해 범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사법적 의지로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정치스캔들이나 정말로 용인할 수 없는 국가의 부주

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구조화된 성차별의 또 다른 증거를 마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 모두 자체적으로도 끔찍하다. 하지만 훨씬 더 꺼림칙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설명 모두, 그러한 설명 하나하나, 그러한 모든 설명을 합친 것,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어쩌면 셀 수 없이 많은 설명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것은 엄격히 말해 우리가 그러한 설명 중 어느 것도 앞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과도 같다.

따라서 후아레스 시의 여성살해는 수수께끼 같은 살인마와 여러 희생자 간의 잔인하지만 흥미진진한 상호작용이라는 할리우드식 추리영화의 장면이나, 비인간적이고 기계처럼 효율적인 관료 기구의 진실 은폐와 관련된 정치 음모라는 역시 매우 할리우드 영화 같은 장면과는 다르다. 우리는 지독히도 소외된 여성들, 그래서 마구 유기해도 될 법한 그녀들의 시체를 중심으로 한 모호하기 짝이 없는 추측들이 난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추측들은 다양한 담론의 장(campo discursivo)에서 저마다 그럴싸하게 부상(浮上)한 서사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합쳐지면서 폭력과 비열함과 몰상식으로 점철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블라노를 비롯해 제니퍼 로페스, 토리 아모스 등 여러 분야의 대중적 스타들이 여성살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생각해 보라. 또한 신뢰를 잃은 정부가 내놓은 공식적 ‘진실’ 혹은 희생자가족들과 사회 일각에서 확신하다며 옹호하는 대안적 ‘진실’(‘진실들’)의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이를 염두에 두어야만 우리는 뒤범벅된 이야기에 대해서, 후아레스 시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 —그러나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미국 FBI 수사관 로버트 K. 레슬러의 말마따나 정말로 “환상특급(twilight zone)”

같은 세계를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로소 진지하게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인간이 자신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너무나 잘 드러낸 미국의 어느 고전적인 TV연속극 제목에서 유래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후아레스의 살인 사건 같은 서사적·미디어적 현상에 ‘여성살해’만큼 딱 들어맞는 표현이 또 어디 있으랴? □

[번역: 조성훈]

---

로베르토 폰세 코르데로(Roberto Ponce-Cordero) - 피츠버그대학교 교수

---